



영국 정부의 장수채권(longevity bond) 도입 계획

영국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민간 연금기금과 연금운용기관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장수채권 발행을 계획함. 이와 함께 일부 기업들은 퇴직연금 장수스왑(longevity swap)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는 수명연장에 따른 연금지급체계의 리스크를 헤지하고 신규 가입자들의 보험료 추가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영국정부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고령화로 민간 연금기금과 보험사 등 연금운용기관의 연금지급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이의 경감을 위해 장수채권(longevity bond)을 발행할 계획임.
 - 영국 정부는 민간 연금기금의 공적인 역할 및 이들의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우려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번 지원 대책을 마련함.
 - 향후 5년간 연금가입자의 수명연장으로 인해 민간 연금기금 및 연금운용기관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금규모가 7,030억 파운드(약 1조 1,4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현재 연금운용기관들은 신용위험 및 이자율위험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공학 기법을 통해 리스크를 헤지하고 있으나, 연금가입자의 수명연장으로 인한 미래 예상 연금지급액 초과위험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임.
 - 그리고 최근 연금지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연금지급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장수채권은 특정연령층에 대한 수명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이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짐.
 - 연금운용기관에 따르면 장수위험은 연금가입자 연령이 90세에 도달할 때 최고조에 달하며, 통상적으로 65세 남성이 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평균 25%로 책정되어 연금에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16~33%로 나타나고 있어 연금운용기관의 연금지급 부담이 높아지고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영국 정부가 발행 계획에 있는 장수채권의 기준연령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연금 모두 지급액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임.
 - 장수채권의 리스크프리미엄(risk premium)은 장기국채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임.



- 영국 정부가 민간부문 연금지급기관 지원을 위해 장수위험(longevity risk) 관리에 앞장서는 배경은 다음과 같음.
 - ① 정부는 예상 가능한 민간 연금지급 시장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 자금을 확충하고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자 함.
 - ② 장수채권 거래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가격책정 등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핵심적 역할 수행이 요구됨.
 - ③ 정부는 공신력 있는 생명표 제공을 통해 객관적인 연금지급액 측정 및 안정적인 지급 체계 유지에 일조함.
 - ④ 민간 연금지급이 내포하고 있는 세대간 리스크를 취합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뿐이라는 판단임.

- KPMG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 중인 300개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향후 퇴직연금 추가 지급에 대비하여 2008년말 현재 약 400억 파운드를 추가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말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지난 2004년 이후 3년간 예상수명은 약 3년 늘어났으며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6개월 더 연장됨.

〈표〉 영국 연령대별 65세 이후 예상 생존 기간

(단위 : 년)

2008년말 현재	65세 이후 예상 생존 기간					기간별 연장수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2007	2007~2008
65세 기준	18.4	19.5	20.1	21.2	21.7	2.8	0.5
45세 기준	19.4	19.8	21.0	22.3	23.1	2.9	0.8

자료 : KPMG

- 이에 앞서 영국에서는 개별 기업으로는 최초로 Bobcock International이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45%에 대해 Credit Suisse와 7억 5,000만 파운드 규모의 장수스왑(longevity swap) 체결에 합의한 바 있음.
 - 장수스왑은 스왑계약 체결 당시 예상수명을 기준으로 약정된 비용을 정기적으로 스왑계약 대상자인 투자은행 또는 보험사에 지불하는 대신 미래 시점에서는 실제 생존율에 대한 자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JP Morgan과 Swiss Re가 제공하는 UK population longevity 지수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됨.
 - 이와 같은 기업과 금융기관간 장수스왑 체결 규모는 향후 1년내에 최대 50억 파운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50여년 후의 미래상황을 대비하는 장수스왑은 여타 금융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격위험 및 거래상대방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장수채권 및 장수스왑 도입은 연금지급기관의 부담 경감 및 신규 연금가입자들의 보험료 추가 납입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KIF**